

2010년 2월 19 CTN 청년부 교육자료 올려진 기도회 제시영상을 정리했습니다.

<전도를 하려면>

안녕하십니까. 서울 화목교회 김보배라고 합니다.

2010년 2월 19일 새벽 1시경에 예수님께서 10만 선교를 위해 영육 모두 재정비하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금요성령집회 때 조은 목사님께서 이번주에는 10만 선교를 위해 특별히 더 기도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집회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과 지도자와 섭리 전체를 위해 회개하며 저희가 전도 전에 고치고 바뀌어야 할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꼭 말씀해 달라고 간구했을 때 주님은 환상을 보이시며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환상입니다.

그물이 펼쳐져서 죽 널려져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많은 고기를 잡기 전에 그물을 촘촘히 정비하라. 그물을 튼튼하게 만들어라. 겹줄로 만들지 않으면 고기가 사이사이로 빠지게 되어있다. 그물이란 말씀의 그물, 기도의 그물, 조직과 체계의 그물, 관리의 그물, 전도의 그물이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을 보이셨습니다.

도르레와 도르레를 돌리는 손잡이를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도르레를 잡아서 돌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열매가 쏟아 질 것이다. 도르레를 돌리면 힘이 덜 든다. 많은 열매를 쉽게 딸 수 있다. 많은 고기를 낚을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환상으로는 높은 산봉우리들이 있는데 그 산봉우리들 마다 어떤 남자가 줄을 연결해서 너무 쉽게 산을 줄을 타고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너무 재미있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저렇게 쉽고 재미있게 죽 타고 내려오듯이 해야 전도가 쉽다. 이렇게 해야지 힘이 덜 든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환상을 보였습니다.

크고 무거운 상자들이 몇 개 일렬로 죽 서있었는데 주님이 손가락으로 하나를 넘어뜨리자 옆에 상자들까지 주르륵 넘어갔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한명이 전도되어 넘어오면 다른 생명도 주르륵 다 넘어오게 하는 것이 방법이다.’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힘이 쎄 보이는 어떤 남자가 힘들게 간신히

생선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생선을 입에 넣다가 놓쳐버리자 안타까워하는 모습 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혼자서 고기를 잡으니 놓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환상입니다.

어떤 남자가 집을 지으려고 큰 통나무를 힘들게 킁킁거리면서 안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힘들어서 중간에 놓치자 나무는 깨져 버렸습니다. 이 남자는 그 나무를 발로 차면서 힘들다고 짜증을 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말씀하시길 ‘그냥하면 중간에 무겁고 힘들어서 깨진다. 놓쳐서 오히려 생명전도를 망쳐버리게 된다.’ 말씀 하셨습니다.

마지막 환상입니다.

굵은 쇠사슬이 보이셨습니다. 이 사슬 대열이 서로 서로 잘 맞물려 있는지 저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생명을 끌어올리기 전에 대열을 잘 정비하라. 기도의 대열이 잘 갖춰져야 한다. 조직의 대열, 사랑의 대열, 말씀의 대열이 잘 갖춰져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비유를 본 후에 저는 뜻을 알 수 없어서 고민하며 깊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 풀어 주시 시작했습니다.)

뱃사공이 배를 띄우기 전에 배를 정비하듯이 전도의 배를 정비하여라. 도르레가 있으면 생명들을 세상에서 섭리 주 관권으로 쉽게 옮길 수 있다.

부서진 도르레는 기능을 할 수가 없다.

(제가 예수님 도르레가 무엇을 비유하는 것입니까. 여쭙어 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무거운 것, 큰 것을 쉽게 옮기게 만드는 것이 도르레이지 않느냐. 이것처럼 생명을 옮김에 있어서 세상과 기성에서 섭리로 옮길 때 쉽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옮겨줄 너희의 영적, 육적인 발판을 의미한다. 그것이 도르레가 의미하는 것이다.

생명 전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많은데 전도하는 자들이 언제든지 쉽게 지원받도록 조직과 체계와 개인의 능력들을 촘촘히 정비하라. 서울에 지하철이 촘촘히 놓여있으니 어디든 쉽게 갈 수 있듯이 조직과 체계가 촘촘하고 그물이 촘촘해야 생명이 섭리 안에 가서 어디든지 쉽게 적응 할 수 있다.

톱니바퀴에 이하나만 빠져 있어도 모든 기계가 고장 나서 돌아가지 않고 멈춰 버린다. 섭리에 생명이 왔을 때 어디서든 어느 부서에서든 어떤 방법으로도 섭리에 쉽게 적응하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촘촘히 갖추어라.

(예수님께 다시 여쭙어 봤습니다. ‘예수님 예를 들어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것이 영적으로 준비할 것이고, 어떤 것이 육적으로 준비할 것일까요?’)

영적인 것으로는 기도와 찬양과 성령을 받아 불타는 너희의 마음, 또한 나를 향한 사랑이다. 전도하고자 하는 불같은 마음이 개인 개인에게 있어야 한다. 모두가 함께 기도의 제단을 쌓으라. 마치 전쟁하기 전에 선지자와 제사장이 전쟁을 위하여 하늘 앞에 제단을 쌓듯이 너희 선생을 중심하여 기도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여호와가 되게 만들어라. 여호와 닮아! 하나님과 성령님과 내가 함께하여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육적인 것으로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각 교회별로 부서별로 사명과 조직과 체제를 정비하여라. 마치 뱃사공이 배를 띄우기 전에 녹슨 부품이 없는지, 나사 빠진 엔진이 없는지 점검하듯 말이다. 또한 너희 각자 마음에도 그러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여라. 조직적, 사명적으로도 이가 빠진 톱니바퀴가 있는지 교단부터 가장 아래의 개개 조직까지 모두 점검하여라.

(제가 예수님께 ‘그 외에 육적인 정비로는 무엇이 있을까요?’여쭙었습니다.)

각자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지, 문화로 할 것이라면 그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는지, 노방 나갈 자라면 말을 걸 멘트와 도구가 준비 되었는지 사전점검을 꼼꼼히 하여라. 모든 부분에 각자가 개개부서가 섭리 전체가 이가 빠진 부분 없이 튼튼한 톱니바퀴가 되어서 하나 되어 돌아갈 준비가 되었느냐.

줄만 당기면 고기가 다 끌어올려지도록 도르레가 완벽하게 준비되었느냐.

전도서에 나온 것 같은 깨진 도르레이면 안 된다. 또 그 물이 춤춤 하느냐. 이 모든 것을 다시한번 돌아보고 영육간의 10만 선교를 위한 출항준비를 모두 마치길 원한다. 선장이, 기장이 나팔을 불어서 출항을 알릴 때 배의 모든 부품이 완벽하게 돌아가듯이 너희도 일체되어 움직여야 한다.

단기간에 승리를 하기위해서는 각자가 전도하는 생명들이 남아지기 위해서는 섭리가 하나 되어서 완벽하게 하는 전략밖에는 없다. 모든 것에 아귀가 맞아 떨어져 돌아가는 전략밖에는 없다. 기드온 300용사가 전쟁 전에 훈련하면서 채비를 완벽하게 하듯이 너희도 그리하여라.

(제가 예수님께 여쭙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지금 그 정도의 준비도 안 되어 있나요?’)

아직 안된 곳이 많으니 이야기 하는 것이다. 전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계속 남아지지 않는다면 어느 톱니바퀴에 이가 빠져있는지 꼭 살펴보아라.

3월부터는 정말 출항이다. 준비가 되었든 안 되었든 내렸던 닻의 밧줄을 칼로 잘라버리고 배가 움직여야만 한다. 그래야 시간에 맞춰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너희 각자 모두가 지도자로부터 어린 자들까지 긴장하고 재정비하여 완벽하게 준비하여라.

한 사람도 낙오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한명 전도하고 한명 나가면 무엇 하느냐. 오히려 잃은 양으로 인해 나는 더 슬픈 뿐이다.

관리의 체제를 잘 정비하고 갖추어서 요동치 말지어다. 배가 바다로 나갔을 때 파도가 밀려오고 태풍이 오더라도 요동치 말 것은 내가 너희의 선장이기 때문이다. 모두 나의 말에 따를 지어다. 열심히 할 거라도 나는 믿는다.